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8. 1. 14 ~ 2018. 1. 27 제175호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교회는 건물 아닌, 예수님 따르는 공동체”

필그림교회, PCUSA탈퇴 관련 재산권 포기 결정

동성애를 허용한 미국장로교단(PCUSA)에서 탈퇴하려다 노회에서 부결된 후 상위기관인 총회에서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인 절차에 착수했던 미국 한인교회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소송을 중단하고 교회 건물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기독교일보가 2일 보도했다.

뉴저지 지역의 대표적 교회인 필그림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으로부터 ‘교회 부동산과 은행 계좌 등 모든 재산을 사흘 안에 PCUSA 동부한미 노회가 임명한 행정전권위원회로 넘기라’는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이에 교회는 임시당회를 열어 소송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임시 공동의회를 열기로 했다.

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임시 공동의회에서 ‘귀하는 교회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을 중단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찬성 630표(94.17%), 반대 37표(5.53%), 무효 2표가 나왔고, 결국 교회 재산과 관련 소송을 일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필그림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하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진리 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라면서,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진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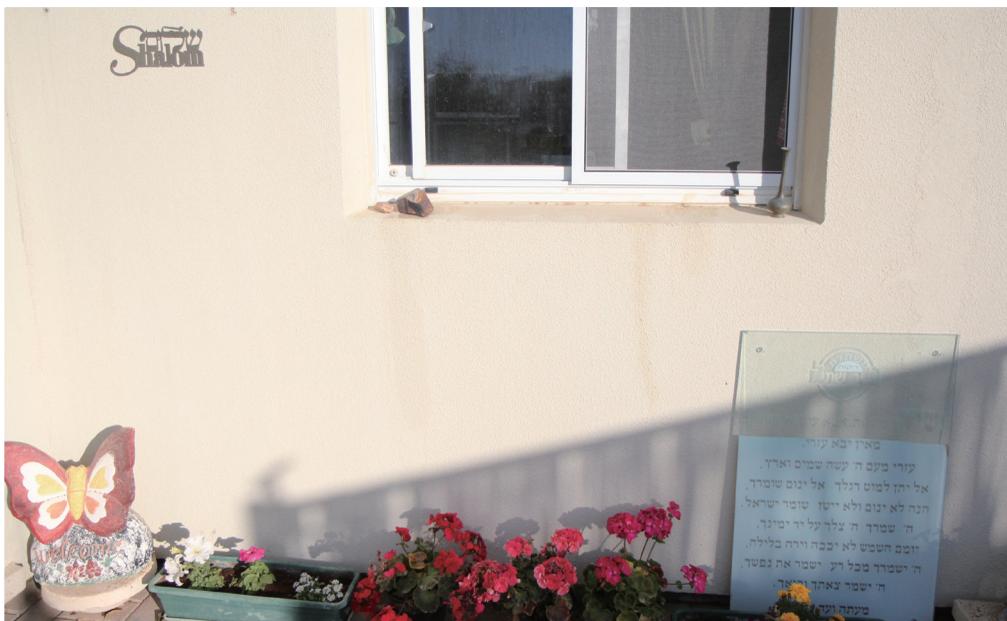
또한 교회 측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면서 “하나님께서서는 12월 말부터 예배하며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처소를 예비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GNPNEWS]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린도후서 6:10)

기도 |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비진리의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교회를 드러내심을 찬송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좁은 길을 걷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과 같이, 맛을 잃어버린 곳에서 소금과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되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입자!



- 이스라엘 남부 광야 한복판, '기도의 집'

햇살

이 머문 담벼락 한 곳에 '샬롬(Shalom)'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그 아래에 소박하게 피어난 키 작은 꽃들도 보인다. 웰컴(Welcome)이 새겨진 돌 위에 나비 한 마리가 꽃들과 함께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을 평화로 초대해주는 것만 같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분쟁, 다툼, 시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평

화를 외쳐보지만 신기루 같을 뿐이다.

그런데 그늘진 오른편에 히브리어로 빼곡이 새긴 유리판이 보인다. 시편 121편 말씀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평화를 잃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가

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 되셨다.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가서 은혜를 입자! [GNPNEWS]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린도후서 5:19)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50)

당신은 '자아 숭배교'를 믿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나는 무교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난 내 자신을 믿어요.” 이 말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가치를 결정하고, 추구하고, 책임지고, 노력한다는 의미겠지요? 맞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교는 아닙니다. 당신의 종교는 '자아 숭배교'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으며, 자아 만족이 목적입니다.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당신 자신에게 근거하고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숭배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모든 인간들은 '자아 숭배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아를 숭배하기 때문인 것을 아십니까? 자아 만족을 위해 결혼도 해보지만 서로가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자아 숭배교 신자 두 명이 만난 거죠.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자아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불행해집니다. 자아 숭배교의 문제점은 이렇게 인류의 수만큼 교주가 많다

는 것이며, 그래서 서로의 운명을 지옥까지 끌고 가게 되는 구원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다 해도 '자아를 위한, 자아에 의한 자아 숭배'라면 결국 다른 이름을 가진 같은 종교, 자아 숭배교입니다.

그러나 진정 당신을 자아 숭배교에서 해방시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아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당신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일러스트=김경선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한국	국내 언론, 기독교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 '심각'	2면
기획 부흥의 현장을 가다	“베트남은 지금 회어져 추수할 때입니다”	3면
인터뷰 이경희 목사	“병원에서 환자를 주님의 제자로 파송하는 기쁨이 있어요”	5면
칼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 예수가 전부요!”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국내 언론, 기독교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 '심각'



▶ 지난 12월 28일 MBC 뉴스투데이 방송(출처: imbc.com 영상캡처)

국내 언론의 기독교 관련 보도가 심각한 왜곡과 편파 보도를 일삼고 있어, 교회 및 관련기독교단체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MBC는 지난해 말 '십일조 내려 번호표까지...묻지마, 선교비 한 달에 10억'이란 제하의 보도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재정투명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교회 수입과 지출 관련된 사항을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며 "재산 관련 당회분과위원회가 교회의 재정 지출에 관한 위원회 의결로 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나 일

부 개인의 지시로 교회의 재정이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국민일보가 밝혔다.

또한 교회 측은 "원로목사에게 지급된 선교비에 대해서도 '고의,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부 판단을 이미 받은 바 있다"면서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편향 보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1월말 jtbc가 명성교회의 광성교회 기도원 매입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광성교회는 당시 'jtbc 손석희 보도사장님께'라

는 제하의 반박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광성교회측은 "보도내용에 사실과 심각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 교회는 기도원을 일반 기업보다 교회에 팔기를 바랐다"며 명성교회측도 "탈북민을 위한 쉼터나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활을 위한 갱생 시설 등으로 검토하며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대구MBC는 한 장애아동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학생들에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리는 강연동영상을 보여줘 학부모가 항의하고 학교 측에서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교사는 당시 "대구에서 6월에 동성애자들의 쿼어문화축제가 열린다는 현실에 안타까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교회에서 전교인이 참여해 강의한 영상을 편집해 보여줬다"며 대구MBC에 보도된 내용은 터무니없는 편집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또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측은 "이 사건은 대구MBC의 '마녀사냥'식 편파 보도이며, 언론의 공정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GNPNEWS]

한국

헤브론선교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헤브론선교대학교는 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로 선교적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대상자들이다.

입학설명회는 2018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5시, 헤브론선교대학교에서 열리며 사전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신청은 전화 010-2900-1737, 010-7200-4641

로 하면 된다.

입학원서는 설명회 당일 배포하며 원서접수기간은 2018년 1월 12일(금)~29일(월) 마감일은 우표소인까지다. 단, 원서접수는 입학설명회 참여자에 한하며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문의하면 된다.

입학전형은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입학전형료 7만원.

문의 ☎ 041-667-1737, 010-2900-1737, 010-7200-4641



이메일: hufm@hanmail.net
주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헤브론선교대학교. (31952) [GNPNEWS]

한국

11기 청소년복음캠프 훈련생, 섬김이 모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11기 청소년복음캠프가 2월 20일(화)~24일(토)까지 4박5일간 열린다. 참가 대상은 예비 중학교 1학년(2005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1999년생)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이며, 원서 접수기간은 12월 27

일(수)~1월 27일(토)까지다. 원서는 웹사이트(cafe.naver.com/goodnewsprayer)에서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해외일 경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섬김이는 청소년복음수련회, 복음캠프, 복음학교 수료자면 누구

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훈련생 모집기간과 동일하다. 캠프 장소는 추후에 공지.

문의 ☎ 010-9824-0365, 010-5444-7386, 010-5146-4641
이메일: kwang63417@naver.com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2.24~2018.1.6)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WHO, 정신건강 장애에 '게임 중독' 추가 추진

세계보건기구(WHO)는 내년 5월로 예정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에 앞서 만든 초안에서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ICD 정신건강 조건에 포함할 것이라고 CNN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나님. 게임에 중독되는 현상이 정신건강장애보다 더 깊은 죄의 문제 때문임을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ISIS 쫓겨난 이라크서 3년 만에 성탄 예배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로부터 해방된 이라크의 북부 텔레스코프에 있는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3년 만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졌다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14년 이후 기독교인 1만2000명은 빨빨이 흩어져 숨죽여 살아왔다.

주님. 이라크에 성탄예배를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압과 고통 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주옵소서.

올해 전세계 재해로 330조원 경제손실... 63% 급증

세계적 재보험사 스위스리의 리서치 계열사 시그마에 따르면 올해 자연재해와 인재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이 3060억 달러(약 330조 357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인재로 보며 이 땅이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증인들을 일으키시옵소서.

북한군·북한주민 귀순 잇따라... 올해 귀순자 작년보다 3배 증가

북한 주민 2명이 20일 어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와 귀순한 데 이어 21일 오전에는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최전방 중서부 전선 우리 군 GP(비무장지대 소초) 전방으로 귀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귀순자는 총 9회에 걸쳐 15명으로 파악됐다.

하나님. 자유를 갈망하며 남한을 찾아 온 북한 주민들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주의 백성을 일으켜주십시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1월 15일 ~ 1월 27일

- | | |
|---|---|
| 1월 15일~20일 | 1월 21일~27일 |
| 1.15~20(매일 0시~24시)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 010-7364-9982 | 1.22~23, 25~26(매일 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
| 1.15~16, 18~19(매일 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 1.23~26(매일 15시~17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 031-432-1590 |
| 1.16~19(매일 15시~17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 031-432-1590 | 1.25(08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 010-8482-8651 |
| 1.18(08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 010-8482-8651 | 1.26(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
| 1.19(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 1.26(10시)~27(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 1.19(10시)~20(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현장 리포트 | 부흥의 현장을 가다

“베트남은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입니다”



▶ 베트남 VNTG교단의 성탄축하모임에서 결신자를 초청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베트남 땅에서 모든 공개적인 선교활동은 멈춰섰다. 이 땅에서 교회의 흔적이 거의 사라지는 듯 했다. 20세기 초 학생자원운동 세대를 통해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땅에서 선교사들은 추방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보트피플로 이 나라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난민 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고국 베트남의 복음화를 소망하며 하나둘씩 찾아들면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부흥은 다시 시작됐다. <편집자>

하노이시에 거주하는 번 자매는 대학교수였던 남편이 태국의 대학에 교환교수로 태국에 체류중일 무렵 우연한 기회에 한 선교단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베트남에 귀국한 이후,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를 찾았다. 그러나 당시 새신자를 돌봐줄 교회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90년대 말 번은 종교활동을 단속하던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서에 가보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붙잡혀 온 사람이 자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경찰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 보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기뻐요.”

번 자매는 그렇게 경찰에서 풀려난 이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또 기도모임을 만들어 함께 기도하며 갈급함을 채워갔다. 그러다 밤샘기도를 하던 중 성령세례를 경험했다. 번 자매의 신앙생활은 더욱 뜨거워졌다. 당시 4층 집을 소유하고 있던 번 자매는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다.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바치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내가 갖고 있던 건물을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신앙공동체는 차츰 교회의 꼴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건물 한 층은 교회모임을 위해 사용됐다. 성도들은 시간만 나면 전도하러 나갔다.

“노방 전도할 때는 작은 선물과 전도용 책자를 함께 배포합니다. 이런 전도용품들을 나눠줄 때는 지역별로 구분해 전화번호를 적어 나눠줍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현재 10%대로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가 사람들의 심령까지 채울 수는 없다. 목마른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싶어한다. 이때 전도물품은 이러한 이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었다.



▶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번 자매

“
어려움도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

다. 그렇게 배포된 전도용품에 적힌 전화로 상담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역 책임자들은 걸려온 전화를 받아, 상담하고 복음을 전한다.

“지금 베트남은 희어져 열심히 추수할 때예요. 매주 6~7개 지역으로 구분해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이들은 평일에 각자 자신의 생업

활동을 한다. 그리고 화요일은 밤샘기도를 하고, 수요일에 전도를 위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인다. 토요일 아침에 열리는 기도모임에는 전 교인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 모임에서 주간 상황을 종합한다.

주 3일은 전도와 기도에 할애

주일에는 200여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할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 대부분 이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얘기를 듣노라면 전도가 주업이고, 자신의 생업은 마치 부업같이 느껴진다. 예수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다.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면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파송한다. 우리로 치면 ‘집사’를 그저 일꾼으로 부른다. 이들 일꾼을 성도 두세 명이 있는 곳으로 파송을 결정하고 통보한다. 그러면 이들은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곳으로 옮긴다.

다른 지역의 한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파송받은 일꾼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경비는 100달러 정도라고 한다. 그렇게 몇 달이면 교회가 세워진다. 몇 년 사이에 성도가 70명으로 늘어난 곳도 있다. 이런 전도활동과 신앙생활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물어봤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 살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니까 그저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도 웃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한 두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어떤 개척교회는 지역에서 동네 불량배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교회 건물을 파괴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그런 공격을 받은 곳이 있어요. 일일이 셀 수가 없어요. 그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다음 길을 열어주세요.” [GNPNEWS]

[하노이=본지특파원]

“내 숨이 쉬어질 때까지 교회에 가겠습니다”

성탄절에 열린 새신자 초청 전도집회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웨딩홀에서 새신자초청 전도집회를 겸한 성탄축하예배가 열렸다. 성도 1천여 명이 모인 이날 ‘주님은 베트남의 기쁜 소식’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됐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 좋은 옷 입고 즐거운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베트남 민족에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한 설교자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의 기쁜 소식입니다.” 청중은 여러 차례 아멘으로 화답했다. 또 중간중간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특송과 율동으로 분위기를 한껏 뜨겁게 했다.

말씀 선포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등장, 짧게 자신의 변화된 삶을 나눴다. 이제 예수 믿은



▶ 교회 등록 9개월째인 한 할머니

지 9개월 됐다는 할머니는 매주 40km를 손주의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내 숨이 쉬어지는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우리나라 70, 80년대 집회를 보는듯한 뜨거운 열기로 진행된 이날 집회 하이라이트는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헌신과 결단이었다. 집회가 마치고 직전 사회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단상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다. 이때 앞으로 나온 사람은 대략 180여명. 다소 상기된 표정과 다양한 모습으로 앞에 나온 이들을 참석하신 성도들은 손을 들고 이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축복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GNPNEWS]

[하노이=본지특파원]



▶ ‘주님이 베트남의 기쁜 소식’이라는 이번 성탄 축하예배의 현수막

기획 | 조선선교열전 (13) - 전라남도 편

광주, 복음의 권능으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다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광주 선교부의 설립

1904년까지 목포 선교부는 전남 내륙지방까지 여러 개의 예배장소를 열고 순회했다. 그러나 복음의 처소들이 빠르게 열렸을 뿐 아니라, 항구에 있는 목포 선교부가 전남의 내륙 지방에 있는 교회들까지 순회하는 여정이 멀고 험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1904년 봄, 선교부는 연례회의에서 새로운 도청 소재지인 광주에 선교부를 열기로 결정했다. 광주 선교부의 개척과 책임자로는 목포에 있는 벨과 오웬 선교사 두 가정이 가게 되었다. 그해 12월, 그들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작은 배로 이삿짐을 싣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노 젓는 작은 배로 하구에서 강을 따라 올라갔던 일을 오웬 부인은 이렇게 적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경치가 장엄했다. 날씨도 화창해서 새 집으로 가는 길을 모두 감사했다. 후에 바람과 파도가 좋지 않아 몇 사람은 배멀미를 했다. 수백 년 전에 뉴잉글랜드의 해변에 상륙한 사람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느낌



▶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지에 있는 오웬 선교사(한국 이름 오기원)의 묘(출처: 한국관광공사)

이었다.”

광주에는 믿는 교인 한 가정이었다. 목포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먼저 광주로 이사 온 김윤수가 가정이었다. 벨과 오웬은 도성 남쪽에서 걸어서 몇 분 안 되는 유난히 아름다운 언덕을 골라 구입할 기회를 얻고, 선교부로 쓸 두 채의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첫 예배는 1904년, 눈 오는 성탄절에 벨 선교사의 임시 거처에서 올려졌다. 광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연일 찾아와서 구경하고 말쑥도 들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여자와 남자들이 다른 방에 앉고 벨 목사가 그 사이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벨 선교사 주택의 사랑에서 집회를 시작한 지 몇 주일이 못 되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벨과 오웬은 북문 안에 기지를 마련

하고 예배당을 세웠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이 집도 비좁아 예배당을 배로 늘리고, 후에 다시 늘려 짝은 5~6년 동안 교인 수는 500명에 이르르게 되었다. 1910년까지 대부분 한국 교인들의 헌금으로 건축된 예배당은 이렇게 세 번이나 확장되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고

전남지역의 사역은 매년 빠르게 성장했다. 벨과 오웬은 25개 구역의 거대한 지역을 담당했다. 이 5년 동안 예배처는 4개에서 77개로 늘었고, 세례교인은 72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났다. 그를 통해 광주 송정리교회(1901), 해남 선두교회(1902), 광주 양림교회(1904) 등 많은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밖에 전남 각 지역을 순회하며 프레스톤(J.F. Preston), 맥컬리(H.D. McCallie), 코이트(R.T. Coit) 선교사 등과 함께 여러 교회를 순

회하며 설교했다.

1909년 이른 봄, 오웬 선교사는 광주에서 79마일 남쪽을 순회했다. 광주를 출발하여 열흘 후에는 화순, 남평을 지나 장흥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심한 오한과 고열에 시달리며 주일을 맞았다. 월요일 아침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자 신실한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 가마를 타고 산길을 지나 시골면 소재지로 운송되었다. 그곳 여인숙에서 또 하루를 앓던 그는 다음날 30마일을 더 운반되어 밤길을 지나 새벽 2시 광주에 도착했다. 프레스톤 선교사는 1909년에 쓴 ‘코리아(Korea)’라는 글에 이렇게 적고 있다.

“약도 없고, 적절한 영양 공급도 없이 가마에 쭈그러 앉아 매서운 북풍을 맞으며 참을 수 없는 통증을 견뎌야 하는 이 극심한 여행은 그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토요일, 그를 돌보던 의사 윌슨 선교사는 위급함을 알고 목포의 포사이드 의사를 불러 상의했다. 그날 밤에 갑자기 끝이 왔다. 그의 마지막 말 중 하나는 ‘아, 그들이 나에게 조금만 안식을 주었더라면...’하는 것이었다. 지친 병사에게 지금 안식이, 다른 세상에서의 감미로운 안식이다.” <계속> [GNPNEWS]

참고문헌: <한국선교이야기>(조지 톰슨 브라운 지음, 도서출판 동연, 2010)

알림

복음기도방송, 전도용 미니 오디오 드라마 개시

본지를 발간하고 있는 복음과 기도미디어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복음기도방송을 통해 전도용 미니드라마를 제작,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기존 복음기도신문 사이트(www.gnpnews.org)에 오디오 코너와 팟캐스트(아이폰, 팟빵(안드로이드)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이 방송은 복음기도방송을 검색, 구독신청하면 된다. 유튜브에서는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등으로 검색하면 된다.

복음기도방송은 향후 킬링 방송, 열방 뉴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터넷방송을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GNPNEWS]



선교 통신

콜롬비아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부흥

태평양과 가까운 콜롬비아에 위치한 초코(Choco)주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이다. 주 정부의 묵인 하에 공산주의 게릴라들과 우파민병대 사이의 충돌이 잦은 이곳 주민들의 삶이란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전쟁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알바로 라미레즈 목사다. 그는 과거에 이 지역을 포위하던 우파민병부대의 일원으로 권력과 돈을 위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쉽게 돈을 버는 데에만 전념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20년 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계급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어 강력하게 복음주의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목사가 된 이후 라미레즈와 그

의 가족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다. 친구들조차 적이 된 것이다. 전투원 출신이었던 그는 지금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게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빵집 운영하며 복음 전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직업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나 착취, 전쟁이 아니라 더라도 건전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역 내에 같은 계열의 직업을 가진 종업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기술적인 면과 함께 복음을 전



▶ 출처: Opendoorsusa 캡처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저와 같은 크리스천들을 배출하여 이들이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특히 복음에 의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학교 세워져

콜롬비아의 요팔(Yopal)은 활기 넘치는 따뜻한 날씨의 지역이지만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곳이다. 오랜 시간동안 이 도시는 콜롬비아 무장혁명인민부대의 요새가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이 악명 높은 곳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학교가 세워졌다. ‘사랑의 작은 씨앗’이라고 알려진 이 학교는 아이들을 기독교식으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있다.

매그놀리아 모레노 목사는 이 프로젝트의 감독이다. 그녀는 남편인 피터 모레노 목사와 함께 15년 동안 핍박받는 크리스천 공동체들을 돕는 사역을 해왔다. 이 부부는 공산주의 게릴라 전투사들을 훈련시켰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을 따르고 있다.

모레노 목사는 말한다.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인 콜롬비아를 치유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학교 때문에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일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신자들도 우리 학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GNPNEWS]

<출처: 오픈도어>

🎙️ 믿음의 현장을 가다 | 병원선교 편

“병원에서 섬기다보니 환자를 주님의 제자로 파송하는 기쁨이 있어요”

병원 선교사로 헌신한 이경희 목사



병원에서 환자들의 신앙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원목’이라 불리는 목사들이다. 이들은 병원의 직원이 아니다. 그래서 월급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털어 환자와 성도를 돌보기도 한다. 33년 동안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섬겨온 이경희 목사를 만났다.

- 원목은 무슨 사역을 하나요?
 “병원에 온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들에게는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해야 해요. 죽음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하고요. 그래서 한 영혼을 끌어안는 마음이 있어야 하죠. 특별히 병원에서 제게 부탁해오는 어려운 환자들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섬기시는 것처럼 전심으로 그들을 섬기죠.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섬기면서도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랄뿐이죠. 감사하게도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환자들과 고백을 여기저기서 듣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죠. 내 안에 계신

는 생각도 못해요. 그렇다고 이 삶이 힘들어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환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파송하고 퇴원한 환자들의 가정에 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 어떻게 병원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는 선배가 섬기는 한 병원에 놀러간 것이 계기가 됐어요. 당시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어요. 그때 암환자들을 봤어요. 말기 암 환자들은 통증관리가 안 됐고, 암 말기가 되면 갈 데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환자는 그때부터 돈이 엄청나게 들죠. 통증이 계속되지만 생명이 끝나지 않죠. 기독교원이라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병원에서 60대 환자를 만났어요. 딸이 혼자 환자를 간호했죠. 그분이 통증을 견디는 모습과 보호자의 생활을 보면서 그런 환자들을 돌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환자들을 섬겼죠. 그러다 제게 한 사건이 생기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됐어요.”

죽음 앞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결정하다

- 무슨 일이 있었나요?
 “99년도에 자궁과 난소에 혹이 생겨서 대 수술을 해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자주 병원에 다니게 됐고 그때마다 죽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수술을 하면서 실제 죽음을 직면하게 됐어요. 이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죽음 앞에 선 영혼들을 섬겨야겠다고 생각하고 호스피스 사역을 결단하게 됐어요. 호스피스 사역은 환자의 마지막을 돕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호스피스를 하려면 상당한 교육비를 내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이후엔 후원금을 내면서 섬겨야 해요. 세상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호스피스 봉사교육에 처음에는 100명이 와도 결국엔 5명 밖에 안 남아요. 또 사역을 시작해 보니 환자만을 돕는 게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환자의 유가족들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어린 자녀가 둘이나 있는 한 환자의 가족을 만났

어요. 이미 암을 오래 앓아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죠. 주위에 챙겨줄 친척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사비를 털어 환자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 어린아이들을 후원했어요. 주님이 말씀해주는 가정마다 아깝다는 생각 없이 도왔어요. 그렇게 돌본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 이렇게 나눠주는 삶이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죠?
 “그건 주님의 은혜였어요. 어렸

을 하고 있더군요.”
 - 병원이 선교지였네요.
 “환자들뿐만 아니라 봉사자들 안에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아침마다 성경을 30장씩 읽고 출근을 했어요. 저에겐 다른 건 없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이 이 힘든 사역의 버팀목이었어요. 호스피스 사역은 매일 두 번의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봉사만 해요. 봉사를 통해서 환자가 예수를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육체적으로는 아주 힘들

를 발가벗기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나의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나는 선교사입니다. 병원 선교사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다시 저를 병원으로 불러주셨어요.”
 - 다시 호스피스 사역을 하셨나요?
 “아니요. 이번엔 원목이었어요. 제가 쉬면서 치료 받은 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환자로서 오래 이 병원엔 다녔죠. 그런데 교회에서 환자들에게 심방을 와도 찬양하기 어려웠어요. 기도하던 중에 이곳에서 섬길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봉사를 허락 받는데 2주가 걸렸어요. 주님의 은혜로 2010년 1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초반 2년 동안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로지 봉사만 했어요. 병원 측은 제가 목사인지도 몰랐으니까요. 2년째 되던 어느 날, 후원 교회에 제출할 선교보고서에 병원 측의 확인이 필요했어요. 덕분에 병원측에서 제가 목사임을 알게 됐어요. 그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더군요.(웃음) 지금은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 어려움도 많을텐데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병원 선교사로 살겠다고 고백한 후부터는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앙훈련 과정에 참여했어요. 나에게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수없이 흔들리니까요. ‘주님, 저는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선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지만 주님이 이 복음으로 나를 살게 하시니까 날마다 기쁘게 이 싸움을 하고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게한 원동력이 되었나 싶어요.”
 -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나요?
 “부모님은 저를 어렵게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아주 자신 있는 사람으로 컸어요. 내 앞에 장애물이 없었을 만큼 모든 것에 자신만만 했어요.
 (6면에 계속)



▶ 환자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는 병동 심방 모습

을 때부터 나누는 삶을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셨고 어머니는 유교집안에 군수 딸이었어요. 어머니는 날이 어두워지면 방문 장수들에게 자고 가라 할 만큼 나누며 봉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덕분에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아깝지 않았어요.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죠.”
 -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군요. 그래도 세상의 가치로는 할 수 없는 사역이네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와도 호스피스 법제화 문제로 싸워야 했어요. 2000년도부터 호스피스 법제화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 결과 제가 섬겼던 병원이 호스피스센터 시범사업소로 선정됐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제 사역을 교회와 병원, 그리고 호스피스를 연합시킨 일이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도 손해 없고, 환자들은 누리고, 지역 교회가 섬김으로 연합이 되는 일이었죠. 바로 선교 현장이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일

을 때부터 나누는 삶을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셨고 어머니는 유교집안에 군수 딸이었어요. 어머니는 날이 어두워지면 방문 장수들에게 자고 가라 할 만큼 나누며 봉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덕분에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아깝지 않았어요.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죠.”
 -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군요. 그래도 세상의 가치로는 할 수 없는 사역이네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와도 호스피스 법제화 문제로 싸워야 했어요. 2000년도부터 호스피스 법제화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 결과 제가 섬겼던 병원이 호스피스센터 시범사업소로 선정됐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제 사역을 교회와 병원, 그리고 호스피스를 연합시킨 일이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도 손해 없고, 환자들은 누리고, 지역 교회가 섬김으로 연합이 되는 일이었죠. 바로 선교 현장이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일

옛 자아의 죽음 이후 진정한 병원 선교에 헌신하다

-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네. 그 시간은 제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해 10월, 한 신앙훈련에 참석하게 됐어요. 복음에 감증을 가지고 참석하러 첫 시간에 ‘목마른 자’에 대한 진리가 선포될 때부터 내가 의인이라는 인식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복음 앞에서 주님은 나



▶ 병원 교회에서의 세례식

주님이 이 사역을 하게 하세요.”
 - 그러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요. 이곳에서 저 혼자 사역하고 있어요. 병원은 마치 선교지와 같아요. 자비량으로 사역해야 하고 일반 목회와 다르다보니 지원자가 많이 없죠. 그래서 신학교에 임상학과를 교과로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은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로템나무 아래 (6)

“나? 예수가 전부요!”

엘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세밀한 음성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다.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총체적인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착각하는 것이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9~10) 구원은 은혜로 받는 줄 알면서, 구원 받은 이후엔 나의 애쓰고 행위로 노력하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기 일쑤다. 구원도 철저히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받은바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임을 기억하라!

‘왜 난 안되지?’라는 질문은 부질 없다. 오직 은혜가 있고, 날마다 승리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다. 자신을 주목하는 한, 갈멜산의 영웅이라도 호렙 산의 굴 안에 있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라! 엘리아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듣고 믿기만 하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 되게 하셔서 영원히 떳떳하고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누구도 이 사실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날마다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초청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여기에

승리가 있다.

이 승리의 복음을 주신 주님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길이 되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말은 막혔고 혼돈된 가운데 길을 찾았다는 말이 아니다.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이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말씀 자체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진리가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 아직도 혼돈하고 있는가? 길 되신 주님만 남게 하고, 가장 완전한 길이 되어 인도하실 주님만 주목하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기는 자가 누구냐”(요일 5:4~5) 엘리아 같은 영웅을 주저앉히는 세상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자는 건드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 세상을 지독하게도 사랑하던 존재였다(요일 2:15~17). 세상의 종으로 태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다. 더 이상 속지 말라!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인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세상의 악한 자가 더 이상 만질 수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어 여기



일러스트=임이랑

고, 드리고, 신뢰하며 살아가라!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스도만 전부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자. “나? 예수가 전부요!” (2016. 7 메시지 정리)<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2017순회복음집회 오디오 CD 발매 **오직 믿음**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무너질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은 라합 선민이었으나 멸하여질 물건에 손을 대어 죽게 된 아간 반드시 멸망하기로 되어있던 자가 살게 되고 당연히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자가 진멸되었다.

무엇이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 되는 오직 믿음. 두려운 경교이자 감격스런 초대이 여기 있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복음과 기도메시지 시리즈 Sola Fide **오직 믿음** 로마서 1:16~17 오디오CD - A/B Track1 (00:00-22:56) Track2 (22:56-43:34) 특약을 선택하면 해당 장정부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용의 선교사 GNM-032CA

오디오 CD(2장 한세트) 6,000원 약 20분씩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선교를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해요”

꿈도 원대했어요. 국회의원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덕에 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으면 지금도 그곳에서 무한한 영적 에너지와 열정이 샘솟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버지와 추억이 살아가는 동력이 돼요.” - 기도제목은 말씀해주세요.

“병원 안에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이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 증인들이 확실하게 일어나서 다른 병원과 열방의 선교기지가 되기를 바래요. 내 몸은 쇠약해지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해요. 가끔은 화끈하게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지만 주님이 별 말씀이 없으셔서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선교라는 것은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이뤄 가지죠. 내가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다음세대가 일어나 헌신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세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또 내 자녀들은 나를 통해,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 믿음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 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내 의를 이루고 이름을 떨치고 인정과 평판과 높임을 받으려고 달렸어요. 그러나 복음을 만난 이후,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순종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예전엔 모금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있어요. 복음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 삶이 너무나 재미있고 편안해요.” [GNPNEWS]

H.M.

▶ 병원교회의 예배 모습



“순종하다 넘어져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배우지만 기도를 하는, 아니 해야만 하는 중보기도학교에서 어마어마한 주제의 강의와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시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진리 앞에 서게 하셨다. 복음을 들은 이후 예수생명답게 살기는커녕 더욱 흉악하고 악독해진 나에게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렇게 될 줄 다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다시 들려주셨다.

이 사랑이 내 심령을 강타했다. 나 같은 죄인을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셨다.

중보기도학교의 훈련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라는 훈련의 목표부터가 절망이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노력과 의지로 품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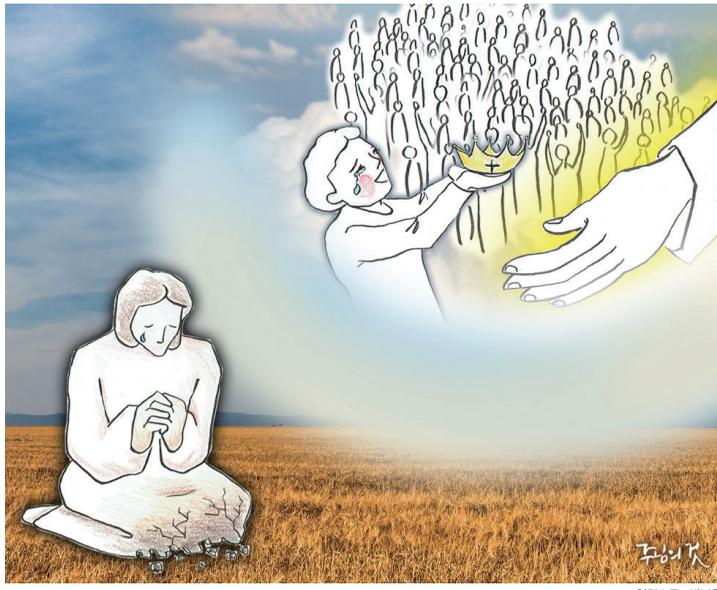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보게 되었을 때 부여졌다. 부서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그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

로 열방을 보게 하시는 그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매주 드러지는 말씀기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화요중보모임에서 주님과 연합되고, 다양한 지체들과 주 안에서 연합되는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맛보게 하셨다.

특히 기도아웃리치 기간은 하나됨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었다.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기도 시간에는 나와 지체에게 주신 말씀들이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가장 완전하고 안전해서, 더욱 이 말씀기도를 사모하게 되었다.

기도로 선교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강의를 통해서도 주님은 복음이 100%인 만큼, 기도도 100% 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기도를 불러온다.”고 한다. 기도를 하다가 절망하여 ‘나로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사형선고에 이르러,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진정



일러스트=박남희

한 기도를 하게 되는 일이 내게 계속해서 일어나길 간구했다. 주님과 함께 복음과 기도로 선교완성을 이루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나라의 영광이 내게 실제 되어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로 세워주실 것을 구했다.

“선교의 최전방은 바로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다.”라고 하시며 기도가 얼마나 중요인지 다시금 일깨워주신 주님. 그분은 말씀

기도와 중보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자리인지 깨달아 기도의 자리를 파수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24시간 365일 열방을 올려드리는 기도24·365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

강의를 들으며 마지막 주의 날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내게 주신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면, 주님이 다시 그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신다는 이야기는 깊은 울림으로 남

았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보다 잠을 더 잔 사람에게는 정말 더욱 은혜가 될 것이다. 순종하다 넘어지고 자빠져서 부끄럽고 염치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목이처럼 일어나 느리고 더디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이 하실 것이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생이 되기를 소망한다. [GNPNEWS]

임화목(지구촌교회)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부흥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영향 받는 북한 주민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은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개별 국가들로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2차에 걸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숨통을 끊을 만한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 2375호가 지난 8월 5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9월 3일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한 3~4교역국인 필리핀의 이런 조치는 김정은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후 남미의 멕시코와 페루, 중동의 쿠웨이트 등의 나라들에서는 북한의 국제 규범 위반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 카타르 내무부도 올해 자국 건설사에 지침을 내려 9월 말까지 북한 건설 업체와 관계를 단절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출처: voakorea.com)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얀마와 베트남, 우간다도 자국 주재 외교관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유엔 총회와 각국 정부를 상대로 대북 외교관계 축소 및 단절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 단체에 대한 제재와 대외원조 등을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의 6월~10월 석탄 수출액은

올해 1월~5월 대비 30% 가량 줄었다.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역시 수출액이 40% 가량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22일 유엔 안보리는 연간 450만배럴 수준의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내년부터 50만배럴, 90%까지 대폭 줄이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결의안엔 ‘외화벌이’에 나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2개월 이내 송환 조치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고, 결국 국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주민들에게 충성자금 할당, 현금 강요, 건설 현장에 필요한 원자재 지원 등 다양한 부담을 강요해 왔는데, 지난해에도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로 거의 일 년 내내 주민들을 동원했다.

2013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인 홍강철 씨는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기계 없이 직접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북한 고위 관리들은 밀수된 정유로 차를 운전하므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시도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들이 북한의 지도부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주민들만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GNPNEWS]

<출처: 모퉁이들선교회>

나의 소망

“하나님의 선물”

아일랜드의 사도로 불리우는 패트릭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게 살았다. 그러다 6년간 돼지치기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린다. 그는 꿈에서 ‘거룩한 청년이여, 제발 와서 우리와 다시 함께 살자!’는 형제의 간청을 듣고 아일랜드로 떠나 복음이 미치지 않은 외곽 지대를 복음화 했다. 또한 로마 제국 밖에 있던 서방 세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수도사를 서유럽에 파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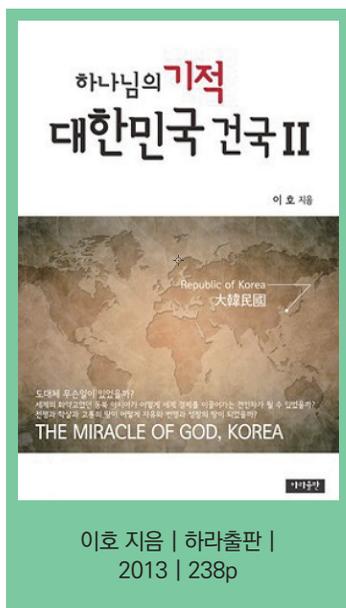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어떤 시시한 일을 했어도 아무도 무식한 내가 그 일을 해냈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 바라며... 그 대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믿어 주기 바랍니다.”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2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대한민국 건국”



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루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주님은 그 기적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승만이였다. 그는 대한민국을 사랑했다. 너무나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겠다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건국이였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뤄진 기적들

이승만은 가장 먼저 토지개혁과 교육혁명, 기독교 전파에 힘을 썼다. 노예처럼 사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교육해 백성을 살리고 세웠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이승만의 관점은 특이하다. 그는 이 전쟁을 남한과 북한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과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의 싸움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반공포로들을 석방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북한 주민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진정한 통일을 한평생 바라며 살았던 것이다. 그는 또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하시는 방법으로 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자신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치열했던 전쟁에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결과를 남겨주셨다. 그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국민의식을 갖게 해준 것이다. 인민 공화국 백성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게 된 백성들이 있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하게 된 것은

‘내버려두사’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우릴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가운데서 행복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는 조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승만이 한 평생 이룬 많은 업적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이 북한과 휴전협정을 맺음으로써 6.25전쟁을 끝내려고 하자 반공포로들을 석방함으로써 미국을 협박하다시피 하여 한미동맹을 체결해 낸다. 이 일을 통해 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와 애국심을 보았다. 이성애에 맞지 않아도, 자신이 육을 먹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조국 사랑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승만의 말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의 말년은 그다지 밝지 않다. 그는 젊은 시절의 예리하고 날카로웠던 통찰력을 잃었다. 그가 세운 자유당은 부패하였고 그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백성들로부터 분리시켰다. 자유당의 끝없는 부정부패의 책임은 이승만에게 돌아갔고 이승만은 하야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승만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물러난 것이 너무 아쉽다. 그러나 그 때에도 여전히 그는 대한민국을 사랑했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마음에 남는다. 그는 죽을 때까지 조국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 이승만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에게 오해 받아도, 돈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했던 멋있는 믿음의 사람. 나도 정말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믿음의 선배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GNPNEWS] 이단비 자매(17)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하루살이의 인생 속에 담으신 하늘 나그네의 삶

아침에 버스에서 내려 인력사무소까지 800m를 걸어가도 산보하는 마음으로 걸으면 즐겁다. “오늘만 일 할거냐?” 이 말은 일을 할 때 항상 듣는 소리다. 그건 너무 열심히 한다는 뜻이다. 비록 하루일당을 받는 일이어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주님이 ‘상관의 눈가림만 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난 일 할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하다.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따라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처절하다. 마치 서바이벌 현장같다. 죽고 사는 현장. 하청으로 고용한 반장은 오히려 내 걱정을 해준다. 나이를 물어보고,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고도 말한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고 하면 오히려 나보다 더 걱정하며 한 명만 잘 키우라고 한다.

함께 일하는 포크레인 기사, 트럭 기사, 보수업체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은 자식 먹이는 걱정, 앞으로 살 걱정, 일자리 걱정이 다. 그러나 난 걱정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일을 할 땐 찬양을 신나게 부른다.

하루는 아침 5시 반에 사무소에 도착했는데 저녁 7시가 다 되어서

야 일거리를 잡았다.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하루살이 같은 나의 인생이여. 그러나 주님은 내 삶이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게 하신다.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곳이 ‘여호와 이레’의 길이다. 내가 애쓰고 걱정해서 38년 인생 가운데 된 것이 몇 개나 있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나의 ‘십자가’는 ‘미래에 대한 염려’였다. 그러나 말긴다. 오늘 죽어도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작업 중 먼지를 많이 마셔 목이 칼칼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다.

어느 날 포크레인 기사가 나보고 일 잘할 것 같으면서 중장비 자격증을 따라고 했다. 그래서 물었다.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응, 50만원.” 웃음만 나올 뿐이다. 내 하루 일당의 몇 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삶이 축복이기 때문이다. 하늘만을 향한 초점집중의 삶을 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하네 주님을 볼 때.

일러스트= 이수진

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상황을 더욱 누리고 싶다. 이렇게 이끄시는 분은, 항상 거기에도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이전에 사역을 할 때에는 이런 행복을 잘 몰랐는데 막노동하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질 전혀 상상도 못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말씀이 삶에서 더욱 실체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부직포를 자르는 칼이, 땅바닥의 못이 내 눈 앞을 스치는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절절히 느낀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내 삶은 하루살이 같은 밑바닥 인생이다. 하지만 잠깐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나는 이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본다. 창세 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비 된 하늘 나그네라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GNPNEWS] 박주영 전도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12. 14 ~ 2018. 1. 2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강종재 권혜령 김경선 김사회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신혜 김애심 김영세 김혜신 단현철 박숙자 박승은 송경희 안민자 안병윤 안현숙 이경희 이란영 이복길 이영선 이정숙 이지영 임미선 임종태 임향주 정해월 조경미 조명숙 조우상 조현광 최우성 최정숙 하은숙 허금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참례교회 그리스도의편지교회
김을찾는작은도서관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문광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산동교회 새순교회 생명나무교회
선한목자교회 쉼 시온교회 시흥지체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열방그루터기교회 은혜의샘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전주은혜샘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행복한우리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